

건강 칼럼

심근경색,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의 진짜 원인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프고 숨이 차오르며 식은땀이 흐른다면 단순한 피로나 소화 불량일 아닐 수 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통증의 정체는 바로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과사하는 질환으로, 발생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급 질환이다. 심근경색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심근경색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치료 속도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질환이다.

실제로 BMJ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치료가 지연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며 시간 지연과 사망률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심근경색이 단순한 질환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다. 심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최시완

유성선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그러나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피떡)이 갑자기 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다.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끊기고 결국 심장 조직이 손상되거나 과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심근경색은 전조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쉬워 더욱 위험하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가슴 중앙 또는 좌측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
△통증이 팔, 어깨, 목, 턱으로 퍼지는 방사통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꺼운 느낌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수 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절대 참아서는 안 된다.

심근경색은 발병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손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많은 환자에서 발병 후 1시간 이내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골든타임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가 지연될수록 심장 기능은 회복이 어려워지고 심부전이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빠르게 치료를 받을 경우 생존율은 크게 향상되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심근경색 치료의 핵심은 막힌 혈관을 최대한 빨리 다시 열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시술) 또는 약물 치료(혈전 용해제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 시점으로, 빠른 내원이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

심근경색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특히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증상을 방치하는 순간,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간다.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지금의 1분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

사설

런던 마라톤대회 초경량 마라톤화의 정체

인류 최초로 마라톤 '2시간의 벽'이 깨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술 도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초경량 마라톤화 때문이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가 문제였다.

캐나다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42.195km 풀코스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다. 이는 종전 세계기록(2시간10분35초)을 1분초 앞당긴 기록이다.

이날 2위 선수 역시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했다. '불가능 영역'으로 꼽혔던 2시간의 벽이 같은 날, 같은 대회에서 연이어 무너진 것이다.

이날 여자부에서는 에티오피아의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에 결승선을 통과해, 자신의 종전 세계기록(2시간 15분 50초)을 9초 단축했다.

그런데, 세 선수 모두 같은 신발

(아디데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을 신고 뛰었다. 아디다스가 3년간 연구·개발한 초경량 마라톤화로, 한 짝 무게가 97g이다.

해외 판매가는 약 74만원 수준이다. 로이타는 최근 마라톤 세계 기록이 크게 줄어든다는 배경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회사들의 신발 개발 경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신발 속 탄소섬유 스프링처럼 작용해 선수의 순수한 능력을 넘어서도록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웨는 이번 기록이 초경량 마라톤화에 의한 '기술 도핑'이 아닌지 묻는 말에 "전혀 아니다. 이 신발은 승인된 것"이라며 "배우가 별로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난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강조했다.

원로화가 박종수의 개인전 '생명의 노래'

박종수 원로화가 개인전이 5월 3일까지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열렸다. 주제는 '어제와 오늘 사이 - 생명의 노래'다.

이번 전시는 그가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전통'과 그 토대 위에서 꽃피운 '현대적 재창조'의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다.

1980~90년대 오랑색 기조의 민화적 풍경으로 한국적 정체성을 탐구했던 작가는 이제 제2의 현실을 추구하는 초현실적 환상의 세계로 진입하며 예술적 지평을 한층 넓힌 모습이다.

전시장을 채운 그의 화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완연한 '주조색'의 변모였다. 전반기 작품이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오랑색'의 시대였다면, 후반기인 최근 작품은 깊은 사유의 고요함이 배어있는 '청색의 시대'를 보여준다.

하늘과 바다를 담은 은은한 청색

조의 배경 위로 불상, 삼죽오, 말, 내비 등 이질적인 오브제들이 배치되어 몽환적이고도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통과 현실, 그리고 초현실이라는 담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상력을 불러오는 작업이다. 실제로 그의 그림은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현실을 풍타주 기법 등으로 정복하며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지점은 '천지인(天地人) 합일'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상징체계로 꼽힌다. 고창 출생인 박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전북예술회관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380여 회의 전시를 했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멕시코 어머니날... 시위 나선 실종자 어머니들



10일(현지 시간) 멕시코 '어머니의 날'을 맞아 멕시코시티 독립기념탑 앞에 실종자 가족과 어머니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실종자 어머니들은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멕시코 곳곳 거리로 나와 행진하며 당국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멕시코에서는 실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1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 트럼프'... 어느 이란 신문의 만평



트럼프10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신문 가판대에 놓인 한 이란 일간지 일요판 1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라고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해적으로 풍자한 만평이 실려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